

“도농복합도시 전북, ‘스마트 빌리지’ 조성해야”

전북연구원, 광역도 적합한 스마트시티 신모델 선도 필요성 제기 ‘아시아스마트빌리지 연구센터’ 설립 정책·기술 체계적 연구 필요

“스마트 빌리지 조성은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해 광역도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신모델로 도농복합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과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된 전북이 ‘스마트 빌리지 조성’과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등 광역도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신모델의 선도 필요성을 제시했다.

스마트 빌리지는 대도시·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

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유럽연합은 지난해 ‘EU Action for Smart Village’를 발표하고, 인도 정부도 2014년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인구의 60% 이상 거주하는 스마트 빌리지 조성계획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브리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당초 스마트시티 조성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었지만 지금의 정책 흐름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며, 지역문제해결 보다는 드론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 실증에 치중되어 국가균형발전 목적이 퇴색했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스마트시티 선정지역 역시 부산, 세종, 대구, 경기 등 광역시 또는 수도권이다. 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선정지역도 광역시와 수도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가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단으로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를 전라북도에 시범 조성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스마트 빌리지 관련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도 제시했다.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맞아 낙후된 북한 도시와 농촌 디지털화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국가적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시티가 아닌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정책적 시각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라며 광역도 단위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리산 뱀사골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아름다운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 남원시 뱀사골 일원에서 '제41회 뱀사골 단풍축제'가 열린다. (남원시 제공)

익산시, 내년도 예산 1조1570억원 편성

올보다 358억 증액... 도시재생뉴딜사업·일자리 창출 주력

익산시가 2019년도 예산을 1조1570억원으로 편성한다. 이 같은 예산은 올해 반영된 1조913억원에 비해 358억원 증액된 규모다.

익산시에 따르면 2019년도 본 예산을 올해 예산액 1조913억원보다 6% 증액된 1조1571억을 편성에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376억원, 기타특별회계 11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85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시는 건설투자 부진과 미국 금리인상, 통상마찰 등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른 지방

재정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예산을 편성,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 및 의무적 경비 지속 증가에 따른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각종 정책 추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부·유사사업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2017년도 결산기준 실적행역을 반영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 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의 누수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시민 중심의 시정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편성, 6개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맞는 예산 편성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시가 추진할 6개 분야별 주요사업은 구도심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청년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설립, 스마트팜 확대 및 북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시민광원제도 시행,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관광도시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필요한 백제왕도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지리산 뱀사골 단풍 절정 28일 단풍축제도 열린다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단풍이 절정을 앞둔 가운데 오는 28일 '제41회 뱀사골 단풍축제'가 전북 남원시 뱀사골 일원에서 열린다.

뱀사골은 약 9km에 이르는 계곡의 기암괴석과 맑은 물,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아름다운 단풍이 어우러지며 절경을 빛어내는 국내 최고의 단풍 명승지다.

현재 전체의 70%가량이 물든 상태이며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제는 단풍길 걷기, 천년송 소원 빌기, 구절초 비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향긋한 국화향기·고인돌 유적...고창으로 오세요”

고창 국화축제 오늘 개막 국화빵·국화떡 만들기 체험도

향긋한 국화 향 속에서 유구한 역사의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람사르습지를 즐기는 '2018년 고창국화축제'가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린다.

축제는 고인돌공원 인근 2만2000㎡ 부지와 900m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오색 국화를 즐기는 자리다.

나무나 돌에 국화 분재를 키운 목부작, 석부작 작품들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식용 국화를 직접 수확해 차

와 국화빵, 국화떡을 만드는 체험의 기회가 마련된다.

국화 향을 맡으며 고인돌 유적지를 거쳐 인근의 운곡 람사르습지까지 산책하는 걷기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황토밭에서 길러낸 고창의 '황토 배추'와 김장 양념, 복분자 등의 농특산물을 싸게 파는 직거래장터가 개설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아름다운 국화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 자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운곡 습지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

전북경찰, 서해안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캠페인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가 가을 행락철인 오는 11월까지 대형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은 휴게소 내에 정차 중인 대형버스와 관광버스, 화물 트럭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대열운행, 음주·가무 등의 위험성을 알릴 방침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인 10~11월은 1년 중 고속도로 교통량이 가장 많아 사고 위험성 또한 높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에 많은 지역 축제가 열리면서 범규 위반 사례도 급증한다”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민중심 시정편다

군산시가 형식적인 시민참여를 탈피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군산시의 시정방침인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실행, 환류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시민참여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시장

의 책무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공개,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 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 다.

시정과 관련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방침이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노벨상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북대병원, 내달 16일까지

전북대병원은 기초의학 연구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임상 의학과 기초 의학을 접목한 특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학년에 관계없이 의학과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4주 동안 진행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11월 16일까지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교육기간(4주) 동안 숙식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담당자(063-250-2453)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